

한기대 지성찬·박상현 학생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20일(월) 시상식...삼성전자 ‘칩렛 패키지 기술’ 과제 수행, 상금 1,500만 원
심사위원 “치밀한 조사와 창의성 돋보여” 평가...학생들 “다양한 자료 분석 집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이하 ‘한기대’) 학생들이 20일(월) 오후 5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대회’(CPU. Campus Patent Universiade)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공모전이다. 올해는 전국 75개 대학 2,319개 팀에 4,912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대학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특허 교육을 장려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한 대회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더불어 후원 기업에 취업 지원 시 우대를 받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연구소가 제시한 문제의 세부적 기술 주제에 대해, 참가 대학(원)생들이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연구개발(R&D) 전략 제시 및 특허 획득 방향을 수립하는 ‘특허전략 부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경영전략 등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발명사업화 부문’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한국기계연구원 등 총 31개 기업이 문제를 내고 후원했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지성찬·박상현 학생(지도교수 진경복)은 특허전략부문과 발명사업화 부문 통합 심사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상금은 1천 5백만원이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출제한 ‘칩렛 패키지 기술’(복수의 칩을 접합하는 기술)에 관해 기업별 국가별 동향을 비롯해, 정량·정성분석, 핵심특허에 대한 분쟁 예방 전략,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및 연구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심사위원들은 “특허 분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치밀한 조사를 수행했으며, 사업의 성격과 경쟁상황을 고려한 특허 회피전략을 제시한 능력이 우수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제안을 했다. 핵심 기술을 이용한 사업계획 수립에 다양한 SWOT

분석을 적용하는 등 우수한 사업화 계획을 제시했다”라고 평했다. 이 학생들은 100점 만점에 96.3점을 받아 2위(90.8점)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지성찬 학생은 “기업이 어떤 것을 원하며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해 특허, 논문, 기사, 기술보고서 등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술분석에 매진했다”면서 6월부터 대회를 준비했지만 3개월이 남았을 때부터 하루에 15시간씩 도서관에서 보고서와 발표자료 제작에 몰두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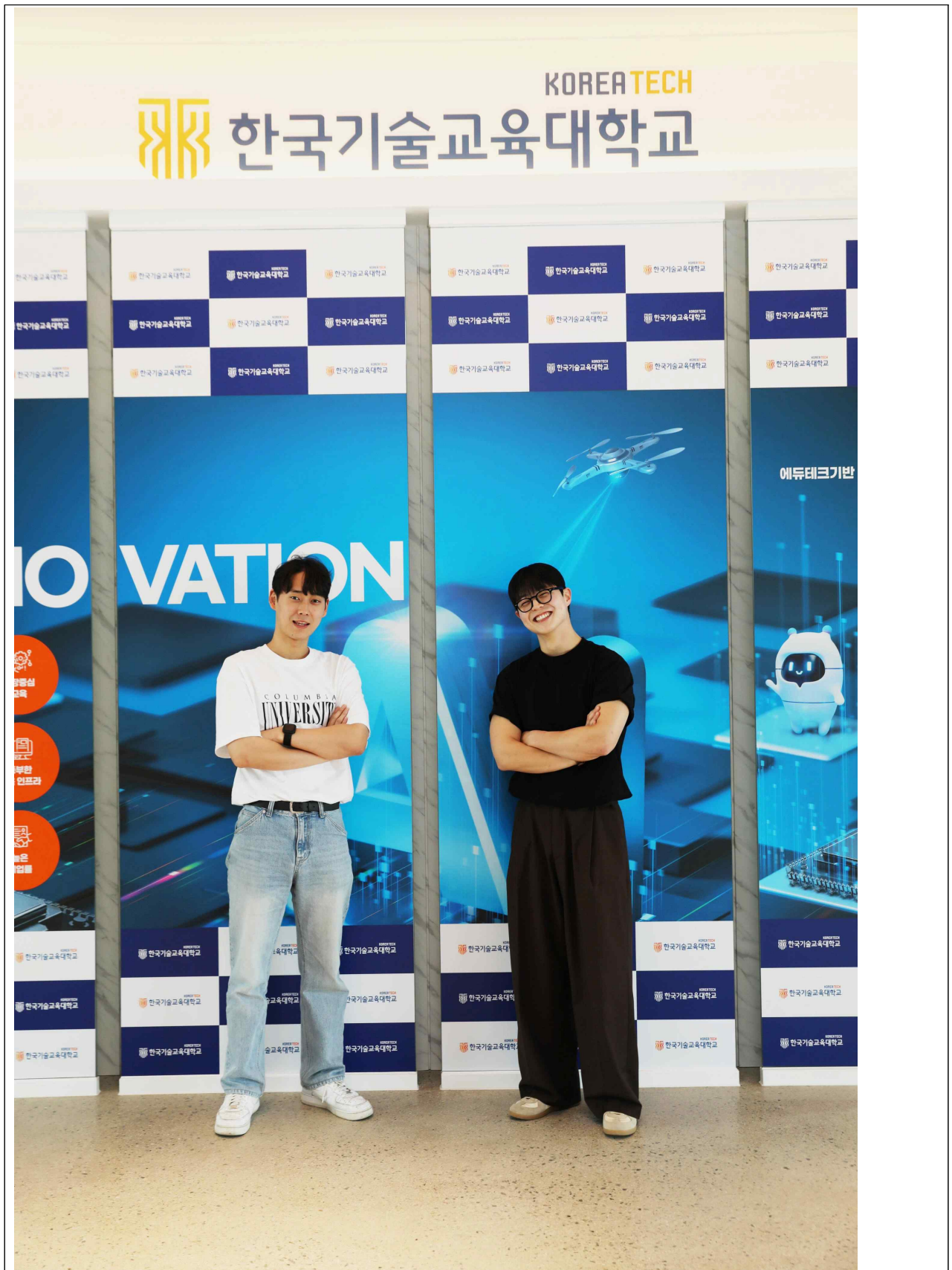
이어 그는 “특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진경복 지도교수님을 비롯해 이혁 교수님의 자문, 과거에 대회에 참가해 수상하신 설순욱 교수님,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신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단과 변리사님 등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진경복 지도교수는 “3학년임에도 열정적으로 특허를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 수립을 통해 대통령상을 받은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특허전략수립 부문의 유성무·이민정 학생(전기·전자·통신공학부)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서 우수상을, 같은 학부 이소현·전용협·김지훈 학생은 ‘오엘이디(OLED) 저반사 기술’ 과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전공분야 대한 열정과 체계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한 교수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단 등 많은 분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입학홍보처 홍보팀	책임자	팀 장	황의택 (041-560-1680)
		담당자	상동	



▲ 11월 20일(월) 오후 5시 서울에서 열린 특허청 주최 '2023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CPU. Campus Patent Universiade)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지성찬(오른쪽)·박상현(왼쪽) 학생.

